

##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 도설\*

유 권 중 (중앙대)

**주제분류** 한국유학

**주요어** 입학도설, 도상학, 도상해석학, 천명도, 체용론, 천인합일

**요약문**

『입학도설』의 도상에 관한 연구는 대략 세 가지 방향의 연구와 관련된다. 그것은 첫째 도에 표상된 의미의 세계, 둘째 도에 관련된 영상도식적 능력의 형성과 그에 입각한 인지적 구도와 내용, 셋째 도상 자체의 도상학적 특징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거의 없으므로, 도와 관련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초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그 기초적 내용이란 우선 도자료를 문서자료들과 구별된 영역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 도 제작의 역사에서 『입학도설』의 위상과 그 영향과 맥락을 고찰한 것이다. 이 고찰을 통해서 『입학도설』의 주제와 원리의 계승, 그리고 도상 형태의 계승과 응용 내지 발전의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입학도설』의 주제와 원리의 계승에 관한 고찰은 『입학도설』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제작된 도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아왔고, 그 결과 『입학도설』의 주제 원리는 물론 도상 형태의 계승이 시대를 이어가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그 주제와 원리는 ‘천인합일’, ‘경학’, ‘체용관’ 등에 관한 것이고, 도상 형태의 계승 응용 발전에 관한 사항은 「천명도」의 형태에 관한 분석과 연관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근의 『입학도설』의 의의를 밝힐 수 있다. 첫째, 권근의 『입학도설』은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도상 제작의 효시로서 경전의 원리와 철학적 원리들의 도상적 표현의 기초가 되는 도상 형식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천인합일의 이념으로 일관함으로써 천인합일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도상 내지 도설집의 제작의 효시가 되었다. 셋째, 『입학도설』의 다양한 그림들은 도상의 방법을 통해서 유교 이념 내지

\* 본 논문은 2005년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교수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철학탐구 제21집**

경전의 이념을 표시함으로써 유교 이해를 위한 영상도식적 형태의 원형이 되었다. 넷째 그 밖에 체용론에 입각한 경전의 내용 체계화라든가, 유교 이념 실천의 원리 체계화는 이후 유학자들의 도의 구성에서 중요한 원리로 계승되었다. 다섯째 권근의 도 제작의 태도는 賓主 즉 主客의 구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관찰자와 대상의 관계를 구별하는 점이 특징이며, 후대의 도 제작자들도 계승하였다.

## 1. 서론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제작한 圖의 수는 적어도 5000개를 넘는다.<sup>1)</sup> 도가 제작된 시기도 고려말 조선초부터 조선이 멸망한 뒤 일제시기와 대한민국시기에 이르기까지 6세기 정도가 된다. 그리고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240인 정도의 유학자들이 많은 적든 도 자료를 남겼다. 이들 가운데 자작도가 있는가 하면 타인의 도를 인용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도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경전의 체계와 핵심적 내용을 도시한 것이 있는가 하면, 유교의 이념과 그것을 지지하는 원리를 도로써 해명한 것이 있다. 또는 예학의 분야에서 의례 실천에 필수적인 복식 기타 기물들을 도시하거나 의례 절차에 따라 참여자들이 취하여야 할 位次를 표상한 것이 있다. 그리고 역학의 원리 및 패상의 상호 관계에 대한 그림이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많은 종류의 도가 존재한다.

書의 精神이 곧 圖라고 표현되듯이<sup>2)</sup> 圖는 단지 문서의 부수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의 내용 가운데서도 정수가 되는 것을 추출하고 요약하여서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도에 있는 것이다. 마치 현대의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집약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도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학자들의 도 제작의 취지도 다름 아닌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데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물체나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글이 비교될 수 없을

1) 이 숫자는 民族文化推進會에서 간행한 표점영인 韓國文集叢刊 1책부터 300책까지의 문집과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에서 간행한 經學資料集成,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고전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고문헌 자료들, 한국국학진흥원 자료 및 기타 문집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은 도자료의 수이다. 그러나 조사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현재 영인 출간되지 않은 문헌들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수의 도 자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三才圖會』序, 古之學者 左有圖 右有書 圖者書之精神也 自龜龍見而河洛興 河洛興而蒼頡造書 史皇制畫 圖與書相附而行 周官教國子字學 首曰象形之不能盡而後諧聲會意指事轉注假借之法助之 書者所以濟圖之窮 圖譜絕而三才之理無所考

정도의 커다란 인지적 효과를 가져오는 기능 역시 도에 있다. 그러므로 도를 이용한 연구와 교육은 인지적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즉 물건의 형상이나 이념 원리의 구조 등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圖는 글보다도 더욱 뚜렷한 형상 또는 구도를 심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리학자들의 마음에 관한 圖像은 마음에 관하여 구체적 형상을 부여하는 은유(metaphor)에 해당한다. 마크 존슨에 의하면, 은유란 우리의 신체적 경험이 추상적 의미와 추론 형식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출발점이 되거나 기초를 형성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의미(meaning)와 이해(understanding), 합리성(rationality)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상상적 구조화(imaginative structuring)와 투사(projection)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은유를 말하는 것이다. 마크 존슨은 은유를 광범위하고 필수 불가결한 인간 이해의 구조-그것을 통해 우리가 세계를 비유적으로 파악하는-로 간주하고 '상상력'이 우리의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영상도식적 능력이라고 주장한다.<sup>3)</sup> 이렇게 본다면, 교육이나 견해의 전달의 과정에서 도는 글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영상도식을 내면에 형성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도를 통한 유교 연구는 글을 대상으로 삼거나 그것을 위주로 삼는 연구 못지않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 중요한 의의란 일단 구체적 형태를 지닌 유교 문물에 대한 형상 인지가 더욱 뚜렷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 또 유교의 추상적 원리들에 대한 영상도식적 능력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는 점, 그로 인하여 문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 형태를 갖춘 구조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도 자료는 유교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문자기록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문자기록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영역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도 자료를 일종의 도상학 혹은 도상해석학<sup>4)</sup>의 관점으로써 다룬다면 그것은 유교의 특징을 드러내는 또 새로

3) M. 존슨 지음, 노양진 옮김, 『마음속의 몸: 의미·상상력·이성 신체적 근거』, 철학과 현실사, 2002년, 33~38쪽

운 방식이 될 것이다. 즉 철학적 관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도상학적 관심사로 본다면 유교적 도상은 다른 학문 종교의 도상과 비교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유교의 도 자료들로부터 유교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가르는 도상학적 체계를 추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도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교의 원리 혹은 이념 등을 표상하는 일정한 형태와 방식이 주요한 고찰 대상이 된다. 이것 역시 도를 통해서 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송대 성리학으로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조선에 전해온 도와 조선의 유학자들이 제작한 도 사이에는 형상 또는 표상의 방식 등에서 同異가 관찰되며, 그 동이 속에는 유학자들이 도상을 제작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내용에 대한 암시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도의 제작을 단지 문자 기록의 부수적 요소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 자체를 중요한 연구 대상과 표현 도구로 삼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사고로 볼 때 유학자들의 도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첫째 도로써 표상된 의미의 세계, 둘째 도에 의한 영상도식적 능력의 형성과 그에 입각한 인지적 구도와 내용, 셋째 도상 자체의 도상학적 특징 등이다. 어느 도나 막론하고 이 세 가지가 두루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를 통해서 유교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이를 고려하는 연구가 되어야 적절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陽村 權近(1352~1409)의 『입학도설』에 관한 연구의 내용은 위에서 첫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sup>5)</sup> 아마도 철학연구자들에게

4) 도상학 혹은 도상해석학은 조형미술 작품을 역사적 시각으로 조망하고 당시의 문화적 문맥으로 돌아가서 그 때 사람들의 눈에는 작품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비쳤을지, 또는 어떤 의미에 빗대어 작품이 표현되었는지 밝혀내는 작업이다.(에케하르트 케머링 편집 이한순 노성두외 옮김,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2005년 머리말 4쪽) 이를 유교 도상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도상(icon)을 분석 단위로 삼아서 거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의 세계를 당시의 유교적 맥락에서 읽어내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기왕의 연구들은 구춘수, 「권근의 입학도설 고찰」, 공산논문집 28집, 1990, 李鍾

는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둘째 영역에 관한 연구가 진전될 경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인지적 구조에 대한 해명 작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영역에 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유교의 연구가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산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학도설』이 그 이후 전개된 조선 유학의 도설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면서 도상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놓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위의 세 가지 관심이 『입학도설』을 비롯하여 기타 유학 도설에 대한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본 연구이다.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입학도설』의 성립과정과 전파, 『입학도설』의 구성, 『입학도설』의 중요 도설 및 그들과 후대 도설과의 연관성, 『입학도설』의 도상이 계승되고 영향을 준 사항 등이다.

## 2. 『入學圖說』의 成立과 傳播

『입학도설』은 처음에는 전집만 간행되었다가 나중에 후집이 간행되어서 합본이 되었으며, 당연히 그 사이에 시기의 차이가 있다. 전집이 처음 저술되기 시작한 것은 권근의 서문에 따르면 1390년(洪武 庚午)이다. 이로부터 晉陽(현재 晋州)의 三路 金爾音(?~1409)이 전집의 발문을 지은 때가 1397년(洪武 丁丑)인 것을 보면 전집을 권근이 완성한 시점은 적어도 1397년까지 하한이 잡힌다. 그리고 권근은 전집을 晉陽에서 간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권근은 도설을 더 많이 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후집으로 편집되었던 것이다. 이 후집의 저술이 완성된 시점은 정확하게 언급된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부록인 「掛拏過揲之法」 말미

尙, 『入學圖說』 後集을 통해 본 陽村의 思想, 한국철학논집 3집, 1993,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2000 정대환, 『「入學圖說」을 통해서 본 權近의 性理學』, 범한철학 26집, 2002 가을 등이다.

에 붙은 三峯 鄭道傳(1337~1398)의 글이 게재된 시점이 1399년(洪武 戊寅)인 것을 보면 후집의 완성 시점은 이 시기로 볼 수 있다.

또 목판에 板刻 印刊하는 과정에도 전집과 후집의 차이가 존재한다. 권근의 문인인 春亭 卞季良(1369~1430)의 발문에 의하면 전집은 권근의 手校를 거친 것이지만, 후집은 그렇지 못했다.<sup>6)</sup> 후집은 권근의 사후에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후집은 권근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타인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사후에 이를 발견한 권근의 아들로서 代言의 벼슬을 하던 止齋 權躡(1387~1445)가 憂堂 朴融(?~1424)에게 간행을 부탁하였고, 이에 감사 李叔畝와 변계량이 발문을 쓸 당시의 감사였던 警齋 河演(1376~1453)이 致力해서 발간된 것이다.<sup>7)</sup> 후집을 간행할 당시에는 이미 간행된 전집의 판각의 글자들이 마멸된 상태여서 후집의 판각을 만들 때에 전부를 다시 진양에서 판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에 관련된 인물들과 그들의 일은 다음과 같다. 前奉常 注簿 鄭陟은 글을 쓰고, 晉陽에서 판각을 할 때에 牧使 李穗와 判官 潘茂良이 감독을 하여서 사업을 마쳤다고 한다.<sup>8)</sup> 권제는 이렇게 간행된 후집을 변계량에게 보여주면서 발문을 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변계량이 수락하였던 것이다. 변계량이 발문을 지은 시기가 1424년(洪熙 乙巳) 가을이었던 것을 보면 권근 사후 15년 뒤에 후집이 간행되면서, 『입학도설』 전부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학도설』에 권근의 서문과 註가 달린 「三峯先生心氣理篇」이 부록된 서적이 출간되었던 것은 그 이후의 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이후 『입학도설』의 전파와 확산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현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가운데 일본의 安田十

6) 『入學圖說』(일본 安田十兵衛 開板本(1648년, 仁祖 26년, 慶安 元年) 卞季良 跋文, 入學圖說前後集 陽村先生之所著也 其前集曾經先生手校而刊之 晉陽顧其歲久而字已剝矣

7) 위와 같은 곳, 後集則先生既沒而其本始出字又多缺惜哉 先生之子代言躡屬慶尙道朴 經歷融刊行 其監司李公及今監司河公演皆爲致力焉

8) 위와 같은 곳, 俾前奉常注簿鄭陟書之 復鋟梓于晉陽 牧使李公穗 判官潘茂良監督功訖

兵衛 開板本(1648년, 仁祖 26년, 慶安 元年) 『입학도설』의 후미에는 龜巖 黃孝恭(1496~1553)의 발문과 일본인 里村遇巷子의 발문이 있다. 구암의 발문에 의하면 1547년에 그에 의하여 『입학도설』이 重刊되었다. 榮川 사람인 그는 『입학도설』의 그림과 글이 性理를 배우는 사람의 指南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白雲洞書院에 소장함으로써 강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였다.<sup>9)</sup> 그러나 당시 존재하였던 판각은 앞서 언급하였던 晉陽의 舊板이 곰팡이가 피고 때가 묻어서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된지[漫滅] 오래 되었고, 浪州의 新本<sup>10)</sup>은 『입학도설』 후집과 부록으로 붙은 「三峯心氣理篇」이 빠져서 계속해서 인출할 수 없었다고 그는 밝힌다.<sup>11)</sup>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을 영천을 방문한 監司 安珰의 후원으로써 새롭게 판각을 만들어서 인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저본으로 사용된 것이 그의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晉陽印本 한 짝이었다.<sup>12)</sup> 이 때 감사 안현은 “지금 사람들이 性理의 근원을 講明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圖가 거의 전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한 군데의 서원에만 소장하여 그 서원의 유자들만 강독하는 것은 이를 인간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성리학 보급을 위하여 이를 印刊하도록 하였던 것이다.<sup>13)</sup> 이 결과 전국에 보급이 되었는가 혹은 보급 상황이 어떤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16세기 중엽에 『입학도설』이 재차 인간되고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사의 지시에 의하여 판각과 교정 작업 그리고 서의 목록 작업이 완성되어 갈 때에 감사의 부촉으로 구암이 발문을 써서 다시 인간된 경위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판본의 『입학도설』에는 1633년(寬永 癸酉, 仁祖 11년)에

9) 위의 책, 黃孝恭 跋文, 誠學性理者之指南也 思欲藏之于白雲洞書院以資講習

10) 이는 1544년(仁宗 원년)에 간행됨.(장숙필, 앞의 논문 참조)

11) 앞의 책과 같은 곳, 而晉陽舊板漫滅已久 不堪印出浪州新本 缺後集與三峯附篇皆不得爲全完爲可惜也

12) 위와 같은 곳, 余有家藏晉陽印本一帙 見相公欲嘉惠後學之盛意 不敢靳遂出而見之

13) 위와 같은 곳, 相公曰世之學者 不喜講明性理之源 故此圖之傳幾乎失墜 今欲藏此于院以討習一院諸儒 不若鏤此于板以流布一國之爲廣也

지은 里村遇巷子の 발문이 실려 있다. 이 발문에는 자세한 관각과 인출 과정이나 사정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발문의 지은이가 1632년 처음으로 『입학도설』과 말미에 붙은 삼봉의 5편의 글을 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는 두 세 사람의 동지들과 함께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句點을 달면서 독서하면서 토론하고 강학을 하였다는 기록도 말미에 남기고 있다.<sup>14)</sup> 이 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파악된다. 즉 성리학의 원리를 一로 파악하고 그것을 곧 形而上의 道라고 파악하는 점,<sup>15)</sup> 성인이 나타나기 전에 이 一은 乾坤에 있었고 성인이 나타난 뒤에는 이 一이 성인의 마음(聖心)에 있었다고 하는 점,<sup>16)</sup> 그리고 성인이 사라진 뒤 이 一은 六經에 존재하였고 따라서 육경은 성인의 마음이 담긴 곳이면서 이 一을 실은 큰 수레라고 파악하는 점,<sup>17)</sup> 역대의 후학들이 이를 보배로 여기고 조술하며 강명함으로써 내 마음에 본유된 一을 인증하려고 했던 점,<sup>18)</sup> 그러나 一의 體用은 미묘하면서도 광대하여서 濂洛關閩의 여러 군자들이 여러 저술을 냈는데 그 취지는 육경을 주석하여서 육경에 담긴 一을 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sup>19)</sup> 『입학도설』과 삼봉의 5편의 글도 육경을 주석하여 육경에 담긴 一의 精蘊을 발명하는 것이라는 점<sup>20)</sup> 등으로 줄거리가 구성된다. 이리하여 그는 『입학도설』과 삼봉의 글을 ‘진실로 理學의 淵藪이고 사람의 裘葛이라’<sup>21)</sup>고 칭송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그는 형이상의 도와 그 체용에 대한 해명이 성리학 공부의

14) 『入學圖說』 「入學圖說跋」, 於是乎遂忘鄙拙 漫附臆見 朱墨相雜而句點之 以與二三同志討論而講之

15) 위와 같은 곳, 夫一之爲理至微哉至妙哉 其一者何 曰形而上之道也

16) 위와 같은 곳, 蓋夫聖人未出斯一在乾坤 聖人已出斯一在聖心

17) 위와 같은 곳, 聖心已往斯一在六經 六經者聖心之所寓而載斯一之大車也

18) 위와 같은 곳, 是故歷代後學寶而祖之講而明之 將以印證我心本有之一焉

19) 위와 같은 곳, 然一之體用微妙廣大難以私心測難以小智窺無乃不易講明耶 是以爲之註脚以羽翼之 彼濂洛關閩諸君子接武並興(중략) 其立言命意雖各自不同 蓋皆不過乎羽翼大車而發明攸載之一 欲以教後學

20) 위와 같은 곳, 前集二十四節後集十五節提要而各圖之(중략) 若夫鄭氏所作之五篇(중략) 豈非是書亦羽翼大車而發明斯一之精蘊者耶

21) 위와 같은 곳, 誠理學之淵藪而吾人之裘葛也

핵심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지녔으며, 특히 『입학도설』의 핵심을 그렇게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 3. 『入學圖說』의 도설 구성

#### 가) 『입학도설』의 구성과 취지

서론에서 밝혔듯이 기왕의 연구들은 도로써 표상된 성리학의 내용, 특히 권근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저술이 바로 성리학 내지 유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상 자체에 주목한다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도설의 주제와 그에 입각한 도상의 구성 방식이다. 이 경우 도상에 의해 표상되는 내용과 방식, 도설집 혹은 도집의 주제와 구성, 및 그로 인한 도설 제작 역사의 맥락 등이 고찰 대상이 된다. 『입학도설』이 후대 도설 제작에 끼친 영향에 관한 지식은 그러한 고찰로써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조선초기에 편찬된 『입학도설』의 圖들과 후대에 제작된 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圖像의 연속성 혹은 相似性을 파악하고, 그로써 형성된 도설 제작의 역사적 학문적 맥락에 관한 연구가 주된 내용이 된다.

이 고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할 수 있다. 하나는 도의 주제라는 면에서 『입학도설』 전체의 주제 혹은 각각의 도설의 주제가 계승되거나 응용되었던 도설 내지 도설집들을 파악하고 대조해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권근으로부터 비롯되어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유교의 본질과 그로 인해 구성되는 유교의 맥락에 대한 추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입학도설』을 구성하는 각 도의 개별적 도상 형태를 중심으로 한 고찰이다. 즉 도상의 형태 및 그것의 제작 원리의 계승 여부에 대한 고찰이다. 권근 이전에 이미 중국 송대부터 도설 제작이 본격화되었고, 그때 제작된 도설들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선의 유학

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권근의 도설로 인하여 조선의 유학자들이 차별화된 도설 제작의 결과를 보였던 점을 이미 학계에서는 주목해왔다.<sup>22)</sup> 그러한 차별성을 논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도상의 주제, 형태, 제작 방식 등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도상의 형태란 문자 그대로 도상의 생김새를 뜻하지만, 제작의 방식이란 도의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고려하는 방식, 및 전체 도상의 구성요소가 되는 부분적 형상들을 조합하여 전체의 도를 완성하는 방식 등을 뜻한다. 그리고 도상에 관한 연구는 위에 언급한 주제의 면과 형태의 면, 또는 방식의 면 등 세 가지가 각각 구분되어 검토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하나의 도에서 복합된 것으로서 고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입학도설』의 도들은 이후 조선에서의 유교적 도상의 형식 혹은 형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모형 내지 원형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유교 도설 제작의 理念的 定向 내지 定礎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 송대 이후에 제작된 도의 형태와 방식을 그대로 추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이 주제를 표상하는 새로운 형상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전체 도를 조성했던 작업은 독자적이고 창조적 성과를 낳았던 것이다. 『입학도설』이 당시까지 존재했던 중국의 유학 도설들과의 차이를 보이는 점은 전체적으로 도설집 주제의 방면에서뿐 아니라 도상의 형태와 제작 방식에서도 관찰된다. 먼저 그 주제는 권근의 『입학도설』 序의 내용이 잘 시사한다.

“洪武 庚午(1390) 가을 金馬郡의 적소에 있을 때 한 두 명의 초학들과 『중용』 『대학』의 서를 읽다가 그들이 뜻을 통하지 못하자 周子의 그림(「太極圖」)에 근본을 두고 장구의 설을 참조하여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선현의 격언으로써 그 뜻을 풀어주었다. 배우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묻는 바가 있었고 다시 그에 따라 답을 하였다. 그리고 그 문답했던

22) 장숙필, 앞의 논문, 55~57쪽 참조

말들을 기록해서 그 뒤에 붙이고 『入學圖說』이라고 이름 지었다. 거기에 다른 경을 취하여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림을 그리고 그림마다 왕왕 본인의 설명을 붙였다. 선생 장자에게 나아가 질정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시골에는 先進이 없고 몸은 적소에 갇혀서 후일을 기다릴 뿐이다. 보는 사람이 나의 망령됨을 용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sup>23)</sup>

윗글은 권근이 그림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문답이 진행된 이후, 그것을 모아서 도설을 만들면서 『입학도설』이 성립하였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초학자들의 유교 입문을 돕는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같은 취지가 실제 『입학도설』 편집에 반영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론된다.

이미 앞 장에서 추론하였듯이,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입학도설』은 처음에 조성된 도설과 문답이 완성된 뒤에 점차적으로 도설이 추가되면서 현존하는 체제가 이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이나 『중용』을 이미 학도들과 함께 읽었음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天人心性合一之圖」, 「天人心性分釋之圖」와 그에 대한 문답, 「大學指掌之圖」, 「大學立傳變文以分知行本末厚薄三節辨議」, 「中庸首章分釋之圖」, 「中庸分節辨議」, 「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 「時裕之圖」, 「一室之圖」 등의 그림들과 그에 대한 문답들이 『입학도설』이 처음 제작할 즈음에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입학도설』에 있는데, 그것은 제9항목인 「一室之圖」까지만 ‘學者問’과 그의 答文이 기록되어 있고, 제10항목 「語孟大旨」부터는 학자들과의 문답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리고 아래 「표1」의 제6항목 「中庸分節辨議」 이하 제9항목인 「一室之圖」까지는

23) 『入學圖說』序, 洪武庚午秋謫在金馬郡 有一二初學輩來讀庸學二書者語之諄復尙不能通曉 乃本周子之圖參章句之說作圖以示 又取先賢格言以釋其意 學者因有所問又隨而答之仍記其問答之言以附其後名之曰入學圖說 旁取他經 凡可作圖者皆圖之 往往各附臆見之說 欲就正於先生長者 鄉無先進 身拘謫籍 姑待後日而已 觀者幸恕其妄而教之 是所望也

모두 『中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용』, 『대학』의 서를 읽다가 그들이 뜻을 통하지 못하자 周子(周敦頤)의 그림(『太極圖』)에 근본을 두고 장구의 설을 참조하여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선현의 격언으로써 그 뜻을 풀어주었다”고 한 데서 『대학장구』나 『중용장구』를 참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그림까지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과 『중용』 이외에도 다른 경전들에 관한 도해를 엮음으로써 『입학도설』의 구조가 완성되었다. 윗글에서 그는 이후에 다른 경을 취하여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 때의 다른 경이란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학』과 『중용』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어맹대지」에는 그림이 없는 설명만을 붙인 것을 본다면, 결국 오경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자들과의 문답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는 앞서 제작한 도설들의 취지를 이어서 五經에 관한 그림의 제작을 지속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가 불분명하다. 즉 그가 처음 『입학도설』이라고 이름지은 때에 모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문맥으로 본다면, 후자가 맞을 듯하며, 또 『입학도설』 전집과 후집이 완성되는 시점이 처음 그림을 그렸던 때로부터 각각 7년, 9년 뒤의 일로 추정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처음에 『입학도설』이라고 명명한 뒤에 오경에 관한 그림들을 덧붙여서 전집과 후집이 차례로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윗글에 근거해서 본다면 『입학도설』은 처음에 天人關係에 대한 두 그림과 『대학』, 『중용』에 관한 그림과 설명을 제작하면서 성립되었다가, 이후에 오경에 대한 그림을 더 제작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이 때에 최초 도설의 주제를 끝까지 관철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체제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표1 참조)

표 1 『입학도설』 도 자료 목록

번호	도의 명칭	출전
1	天人心性合一之圖	入學圖說 前集
2	天人心性分釋之圖	入學圖說 前集
3	大學指掌之圖	入學圖說 前集
4	大學立傳變文以分知行本末厚薄三節辨議	入學圖說 前集
5	中庸首章分釋之圖	入學圖說 前集
6	中庸分節辨議	入學圖說 前集
7	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	入學圖說 前集
8	時裕之圖	入學圖說 前集
9	一室之圖	入學圖說 前集
10	語孟大旨	入學圖說 前集
11	五經體用合一之圖	入學圖說 前集
12	五經體用各分之圖	入學圖說 前集
13	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	入學圖說 前集
14	河圖五行相生之圖	入學圖說 前集
15	洛書五行相剋之圖	入學圖說 前集
16	太極生兩儀四象八卦之圖	入學圖說 前集
17	先天方位圓圖	入學圖說 前集
18	先天方位方圖	入學圖說 前集
19	伏羲先天八卦	入學圖說 前集
20	文王後天方位	入學圖說 前集
21	陰陽六九爲老之圖	入學圖說 前集
22	天圓地方	入學圖說 前集
23	天地生成之數	入學圖說 前集
24	河圖中宮之數	入學圖說 前集
25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入學圖說 前集
26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	入學圖說 前集
27	無逸之圖	入學圖說 前集
28	十二月卦之圖	入學圖說 後集
29	十二月卦之圖(先天圓圖에 입각한 그림)	入學圖說 後集
30	周天三辰之圖	入學圖說 後集
31	一期生閏之圖	入學圖說 後集
32	天地豎看之圖	入學圖說 後集
33	天地橫看之圖	入學圖說 後集
34	望前生明之圖	入學圖說 後集
35	望後生魄之圖	入學圖說 後集
36	土圭測影之圖	入學圖說 後集
37	土旺四季之圖	入學圖說 後集
38	律呂隔八相生之圖	入學圖說 後集
39	五聲八音之圖	入學圖說 後集
40	周南篇次之圖	入學圖說 後集
41	變風十三國之圖	入學圖說 後集
42	公族及太宗之圖	入學圖說 後集
43	掛扞過揲之法	附錄

『입학도설』이 향후 도설의 역사에 끼친 영향을 논할 때 위에서 언급한 주제의 면과 더불어서 도설제작의 취지 역시 중요한 논의의 자료가 된다. 위 인용문에서 권근이 시사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가 적소에 있을 때 찾아온 초학들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자 문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육을 위하여 도 제작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음을 그는 보여준 것이다. 둘째는 그가 『입학도설』의 체제를 經學圖 위주로 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가 「천인심성합일지도」 등을 그린 뒤 사서와 오경에 관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점이 바로 그러하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그는 유교의 교과서였던 사서와 오경의 요지와 중요 사항을 도해하면서, 특히 천인합일의 주제로써 일관하는 유교 입문서의 체계를 표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인합일이 바로 그의 『입학도설』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며 또한 교육용 입문서의 근본취지이다.

#### 나) 『입학도설』에 대한 후대 학자들의 이해

권근의 『입학도설』 제작 취지를 후대의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였던 듯하다. 권근보다 약 140년 뒤에 태어나 활동한 龜巖 黃孝恭(1496~1553)은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입학도설』 말미에는 황효공이 1547년(嘉靖 丁未)에 자신이 머물던 榮川을 방문한 監司 安珪를 만났을 때 자신의 家藏本 1질을 보여주면서 『입학도설』을 다시 印刊하여 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일화가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두 인물은 당시 16세기 전반에 학자들이 性理의 학문에 관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입학도설』의 공부에 그러한 잘못된 풍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황효공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파악한 『입학도설』의 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렸을 적에 陽村선생이 지은 『입학도설』 前集과 그 말미에 붙인 三峯의 心氣理篇을 보았습니다. 그 天人心性의 말씀, 『중용』 『대학』 『논어』

『맹자』의 요지, 六經의 體用的 구분, 河圖 洛書와 『周易』 「洪範」의 이치로부터 聲律의 법도와 撰著의 변화를 초학들이 의문에 걸려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잘 정리하여 파헤치고 깊은 이치를 건져내어서 圖를 그리고 설명을 함으로써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며, 흐릿하게 옛사람이 이미 성취한 矩範을 답습함이 없이 뚜렷이 후학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관건들을 개발하였다고 하기에 족하다.<sup>24)</sup>

윗글에서 황효공은 소시적에 『입학도설』 前集을 보았던 경험을 말하는 가운데 그 속의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이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분명’하다고 술회하였다. 이는 도에 의한 교육 효과 혹은 전달 효과를 그 역시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옛사람이 성취한 矩範을 답습함이 없이 뚜렷이 후학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관건들을 개발하였다’는 언급 가운데 矩範이란 표현이 바로 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sup>25)</sup> 그러므로 이는 그가 『입학도설』의 그림들을 독창적이라고 평가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가 『입학도설』의 체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六經의 體用的 구분’을 언급한 점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이다. 우선 그는 『입학도설』의 원체제에서 五經으로 언급된 것을 六經으로 파악하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이후로 오경으로부터 육경으로 경학적 관심 항목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권근이 圖로써 제시한 체용관계는 오경의 것인데, 황효공이 육경의 체용이라고 한 것은 제 37도의 「律呂隔八相生之圖」와 제 38도 「五聲八音之圖」를 악률에 관한 것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경전 상호간의 관계 내지 경전 각각의 구조를 體用이라는

24) 『入學圖說』 黃孝恭 跋文, 少時見陽村先生所著入學圖說前後集未附鄭三峯 心氣理篇其天人心性之說 庸學語孟之旨 六經體用之分 河洛易範之理 以至聲律之度 撰著之變 凡初學疑礙而難通者 悉皆爬梳剔抉 參躋鈞深 若圖若說 如指諸掌 不一而足

25) 諸槁轍次著, 『大漢和辭典』卷8, 289(矢部 矩條)에서 矩는 柜와 같으며, 이 경우 漢修堯廟碑의 용례를 근거로 圖像規矩라고 설명한다. 이에 근거해서 본다면 矩範이란 圖像에 동원되고 사용되었던 각종 상징적 표상 양식들 또는 그 도상적 양식의 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구조로 연관짓는 권근의 관점을 중요시 하는 점이다. 이로써 본다면, 황효공의 이 언급은 당시의 학계에서 『입학도설』의 경학체제 혹은 유교 교과서에 대한 인지가 체용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중시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소개한 일본인의 발문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一을 형이상자인 道로 간주하고 그 一이 바로 육경에 있으며, ‘一의 體用은 미묘하면서도 광대하여서 濂洛關閩의 여러 군자들이 여러 저술을 지었는데 그 취지는 육경을 주석하여서 육경에 담긴 一을 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언급이 그러한 예이다. 이 一이 바로 천인합일의 근거가 되는 道 내지 理인 것이다.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들도 우선적으로 天人心性에 관한 도설을 『입학도설』의 第一義的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sup>26)</sup> 이와 아울러 경학 특히 오경학에 대한 도설의 구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입학도설』의 구성과 그 의의를 평가하는 시각과 내용에는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구춘수는 『입학도설』의 인간론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人心性分釋之圖」에 한정하였다. 구춘수는 「천인심성합일지도」가 『입학도설』의 중심되는 그림이며, 나머지 그림은 이의 보조적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sup>27)</sup> 심성 수양을 통한 천인합일의 추구가 곧 『입학도설』의 근본 취지임을 시사하였다.

장숙필은 다음과 같이 더욱 적극적이고 세분화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입학도설』의 구성을 통해본 권근의 성리학에 대한 기본 이해는 성리학은 수기에서 치인에 이르는 규모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권근에 따르면 학자는 개인적으로는 심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며 그 방법은 誠과

26) 구춘수, 장숙필, 정대환의 전계 논문이 그러한 예이다.

27) 구춘수, 전계 논문, 101쪽

敬의 수양이요, 특히 치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畏天保民의 요체로서 敬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이 설명과 더불어서 장숙필은 권근의 기본적 입장은 이상적인 인격을 바탕으로 이상 사회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권근이 이해했던 성리학은 정도전이 언급했던 ‘古人明德新民之實學’으로서의 경세학이라고 규정한다.<sup>29)</sup>

그러나 이와 달리 권근의 『입학도설』 후집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권근의 天文觀 및 天人觀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sup>30)</sup> 이종상의 연구는 『입학도설』 후집 역시 사상적 기조는 天人合一에 있고, 추구하는 이상은 大一統과 平天下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상의 현대의 연구들은 『입학도설』의 도설 제작이 목적을 둔 것은 바로 天人合一 이념의 구현이었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다.

권근 자신의 해명과 후대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입학도설』의 구성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天人合一의 이상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유교임을 도설로써 체계화하였다. 둘째 전체적으로는 수기와 치인이라는 유교의 전통적 이상 성취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가운데 敬과 誠을 중심 원리로 삼는 심성 수양의 중요성 및 대일통과 평천하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셋째 천인합일의 이상 성취가 경학적 원리의 체계적 실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므로, 경전의 요지를 체계화하려는 의도가 『입학도설』의 내용 구성에 담겨 있다. 넷째 경전의 요지의 체계화는 體用論의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28) 장숙필, 전계논문, 55~56쪽

29) 위와 같은 책,

30) 이종상의 전계논문 참조

## 4. 『入學圖說』의 도와 그 계승 도설

조선 시대에는 매우 많은 圖 또는 圖說이 저작되었다. 그 중에서 『입학도설』은 현존하는 자료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 때문에 한국 유학 도설의 효시로 간주된다. 동시대 학자인 三峯의 「學者指南圖」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자료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권근의 『입학도설』을 효시로 꼽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직 조선 시대 도설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도설』이 후대 도설 제작에 끼쳤던 영향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입학도설』의 특징적인 도설을 후대 도설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고찰을 위해서 먼저 후대의 도설들 가운데 『입학도설』의 인용과 계승의 형태를 보이는 도설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에 근거하여서 『입학도설』 속의 주요 도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권근의 도설을 그대로 인용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頤齋 黃胤錫(1719~1791)은 『理數新編』에서 『입학도설』의 그림들을 轉載 引用하였다. 대체로 그가 전제 인용한 권근의 도설은 『이수신편』 권7에 「周易綱領」에 부록으로 인용된 권근의 「天地生成之數」라는 도와 그 앞에 있는 天圓地方에 관한 그림이다. 권근의 이 천원지방에 관한 그림은 생성의 수를 도출하는 원리를 도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수신편』 권 19에는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 「無逸之圖」, 「周南篇次之圖」, 「變風十三國之圖」 등이 전제 인용되어 있고, 같은 권에 또 『입학도설』이란 제하에 「周天三辰之圖」, 「望前生明之圖」, 「望後生魄之圖」, 「天人心性分釋之圖」, 「五經體用合一之圖」, 「五經各分體用之圖」, 「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들이 역시 전제 인용되어 있다. 그는 조선 후기 18세기에 활동했던 老論 중에서도 특히 洛論에 속하는 학자로서 尤菴 宋時烈, 美湖 金元行 등의 학통을 계승하는 보수적 성리학자인데,<sup>31)</sup> 그 계열에서 『입학도설』을

중요한 학문적 전통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황윤석과 같이 권근의 도를 전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근의 도를 응용하거나 변형한 도들을 통해서도 『입학도설』의 계승 여부를 살필 수 있다. 먼저 『입학도설』의 주제를 계승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황효공이 지적했을 뿐 아니라 현대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입학도설』을 일관하는 원리인 天人合一을 주제로 삼은 도설은 바로 「天人心性合一之圖」와 「天人心性分釋之圖」,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이다. 이 그림들을 통해서 권근은 유교는 천인합일의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임을 소개하고, 그로써 전체적인 유교관을 제시하였다. 이 유교관이 그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유학 연구자들에게 유교의 공부와 실천이 지향해야 할 바를 확고하게 인식시켜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입학도설』의 天人合一의 이상과 동일한 이상을 담은 후대 유학자들의 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秋巒 鄭之雲(1509~1561)을 비롯하여 河西 金麟厚(1510~1560), 退溪 李滉(1501~1570) 등이 제작한 여러 개의 「天命圖」를 꼽을 수 있다.<sup>32)</sup> 그리고 南冥 曹植(1501~1572)의 「天人一理圖」<sup>33)</sup>, 亦樂齋 金致寬(1569~1661)의 『易圖書』라는 저술 속의 「九疇天人相與之圖」<sup>34)</sup>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守軒 柳懿睦(1785~1833)의 『中庸管見』이라는 저술 속의 「天道人道圖」<sup>35)</sup>도 동일한 주제로 제작된 그림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洪在英(1842~1905)의 『中庸對條』에 게재된 「天人心性情圖」<sup>36)</sup>도 천인합일의 이념을 보여주는 그림에 해당한다.

- 
- 31) 김낙진, 「황윤석의 동서양 자연학의 절충과 시대적 한계」,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2000, 319쪽  
 32) 줄고, 「天命圖 比較: 秋巒 河西 退溪」, 한국사상사학 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12 참조  
 33) 『南冥先生文集』 2책, 590쪽  
 34) 『亦樂齋集』 卷3 (이하 간행처 표기가 없는 원전류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자료임)  
 35) 『守軒集』 卷3  
 36) 『芝坡遺稿』 卷2

또 경전을 주제로 삼은 도설도 있다. 권근의 「大學指掌之圖」는 『대학』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간주되어서 여러 학자들이 인용하고 자신의 저술에 전재하기도 하였다. 16세기에 이황은 『聖學十圖』의 「第四大學圖」를 바로 권근의 이 그림을 전재하였다. 그리고 旅軒 張顯光(1554~1637)은 그의 역저 『易學圖說』에 권근의 「大學指掌之圖」를 「大學圖」라는 이름으로 전재하고 이와 달리 자신이 구성한 「大學改正之圖」를 나란히 게재하였다.<sup>37)</sup> 金佺(1597~1638)는 『朝聞錄』에 권근의 「大學指掌之圖」와 거의 다름없는 「大學圖」를 게재하였다.<sup>38)</sup> 白湖 尹鑛(1617~1680)은 「大學之圖」를 그렸는데, 이는 권근의 그림과 유사하면서도 明明德과 新民을 本末의 관계로 구별하는 등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sup>39)</sup> 屏溪 尹鳳九(1681~1767) 역시 그의 문집 잡저 『大學圖說』에서 「陽村權氏舊圖」라는 명칭으로 권근의 도를 전재하고,<sup>40)</sup> 그 구도를 취하되 궁극적으로 시종일관해야 하는 敬의 원리를 강조하는 「新圖」를 제작하였다.<sup>41)</sup> 그러나 南塘 韓元震(1682~1751)은 권근의 도설은 취할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朱子語類』의 「대학도」를 따르되 부분적 訛謬를 수정하여 「大學圖」를 제작하였다.<sup>42)</sup>

권근이 「中庸首章分釋之圖」를 그린 뒤 이와 똑 같은 주제의 도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이 주제를 공유하는 도설들은 수가 많지만 후대에 여러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져 제작되었기 때문에 권근의 도상 형태나 표상 내용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金佺(1597~1638)의 『朝聞錄』 「中庸首章圖」는 매우 유사한 그림이고,<sup>43)</sup> 尹鳳九(1681~1767)의 「中庸首章圖 新圖」는 「中庸首章圖

37) 『旅軒全書』(仁同張氏南山派宗親會) 下, 386쪽, 『易學圖說』 卷6.

38) 『敬窩集』卷5 (문집총간 100책 327쪽)

39) 『白湖全書』(경북대학교 출판부)中卷 1441쪽

40) 『屏溪集』卷35, 1

41) 위와 같은 곳

42) 『南塘集』(채인식 발간본)下1253, 「記聞錄」

43) 『敬窩集』卷5

說陽村權氏舊圖」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개정한 그림이다.<sup>44)</sup> 그리고 비록 형태와 방식은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권근의 「중용수장분석지도」의 변형적 계승 내지는 주제를 공유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sup>45)</sup> 또한 권근이 『중용』의 내용에 근거하여 「諸侯昭穆五廟都宮之圖」를 그렸는데, 沙溪 金長生(1548~1631)의 「昭常爲昭穆常爲穆之圖」<sup>46)</sup>가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다.

권근의 경학관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오경을 상호 體用관계로 보는 관점 및 오경 각각의 경전 역시 체용으로 분석하여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五經體用合一之圖」를 통해서 표상되었고, 후자는 「五經各分體用之圖」로 표상되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경학 관점인데, 이를 張顯光(1554~1637)이 그의 『역학도설』에서 그대로 인용 전재하였다.<sup>47)</sup> 그리고 앞서 밝혔듯이 황윤석 역시 이 두 도를 인용 전재하였다. 그리고 권근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오경 각각의 요지를 하나의 도면 위에 표상한 海隱 姜必孝(1764~1848)의 「五經要旨圖」<sup>48)</sup>는 오경 전체의 관계에 대해 주목했던 권근의 학문적 태도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권근의 「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는 黃胤錫의 『이수신편』에서 다시 인용 전재되고 있다.<sup>49)</sup>

또 『書經』의 「洪範」에 관하여 권근이 제작한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과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는 천인합일의 이념을 정치에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九疇를 표상한 그림이다. 이에 대해서도 황윤석은 『이수신편』에서 상하 두 그림을 인용 전재하였다.<sup>50)</sup> 그리고 형태가 유사한 그림은 찾을

44) 『屏溪集』卷35

45) 張顯光, 中庸之圖(『旅軒全書』下, 389쪽 『易學圖說』卷6), 尹鑑, 中庸之圖(『白湖全書』中卷 1443쪽), 韓元震, 中庸圖(『南塘集』下1279쪽, 『記聞錄』), 李象靖, 中庸首章圖(『大山集』卷39), 金謹行, 中庸首章圖(『庸齋集』『中庸劄疑』), 崔象龍, 「經書八圖第一中庸圖」(『鳳村集』권6), 李震相, 「中庸首章圖」(『心經竅啓』), 崔世鶴, 中庸首章之圖(『惺巖集』), 徐基德, 「中庸首章圖」(『石南居士私稿』), 金鳳煥, 中庸首章圖(『晦峰集』『中庸究義』)

46) 『石潭及門諸賢集』1, 205쪽, (『沙溪集』권13, 經書辨疑 中庸)

47) 『旅軒全書』下 「易學圖說」卷6, 381쪽

48) 『海隱集』권9, 雜著

49) 『理藪新編』下(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5), 入學圖說 春王正月橫看分釋之圖

수 없지만, 권근이 표방하고자 하였던 천인합일의 주제를 계승하였던 그림은 김치관(1569~1661)의 『易圖書』 속의 「九疇天人相與之圖」이다.<sup>51)</sup>

『서경』의 그림인 「無逸之圖」 역시 권근의 그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도상의 형태를 가감한 그림들이 존재한다. 우선 황윤석의 『理藪新編』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 전채하였다. 그런데 姜必孝는 「無逸圖」가 처음에 중국 당나라의 宋璟에 의하여 제작되었지만 현전하지 않고, 송나라의 張浚이 그린 것, 그리고 국초의 권근이 그린 것을 거론하고, 그 그림이 刪略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원서에 입각하여 자신의 「無逸圖」를 별도로 그렸다고 설명한다.<sup>52)</sup>

권근의 「十二月卦之圖」는 장현광의 「十二月卦氣圖」에서 유사하면서도 월마다 표상되는 卦氣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더욱 분석적으로 표현되었다.<sup>53)</sup> 또 滄洲 沈之漢(1596~1657)의 『月卦圖說』의 「後天十二月卦氣之圖」,<sup>54)</sup> 訥軒 徐聖壽(1663~1735)의 『學理圖說』下 「十二月卦氣圖」,<sup>55)</sup> 陽坡 柳觀鉉(1692~1764)의 『易圖撮要』의 「文王十二月卦氣圖」<sup>56)</sup> 등은 비록 도상에 표기된 괘기와 월 내지 절기의 표기 내용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모두 권근의 그림을 따라서 음양의 괘기를 표상하고 있다. 권근의 『입학도설』에는 두 가지의 「十二月卦之圖」가 게재되어 있는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은 괘기의 표상에 음양을 정반대로 표상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앞의 것을 수정한 것이 뒤의 것인데, 권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앞의 「十二月卦圖」는 「皇極經世」의 一元消長에 입각해서 一基(일년)를 그림으로 만든 것인데,

50) 『理藪新編』下1,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

51) 『亦樂齋集』권3

52) 『海隱集』권9, 雜著, 昔唐宋璟作無逸圖 陳於玄宗而惜圖不傳於今 宋張浚以天中節手書無逸一篇 以進戒孝宗 蓋皆以逸爲人君之大戒 而引君當道無無逸若也 國朝權陽村近又有無逸之圖 然但其加圈也畫一也註書也 以愚意觀之不無合刪略者 乃敢據原書自爲一圖

53) 『旅軒全書』下, 321쪽, 『易學圖說』권4

54) 『滄洲集』別集

55) 『訥軒文集』권5

56) 『陽坡集』권3

卦劃 및 圖가 易과 상반되기 때문에 초학들이 그것을 의심하였다. 지금 先天 圓圖에 의거해서 고정된 것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에 대비한다.”<sup>57)</sup>

「土圭測影之圖」는 姜必孝(1764~1848)의 「土圭測影圖」<sup>58)</sup>에서 거의 같은 형태로 다시 도해되었다. 그리고 「土旺四季之圖」는 장현광의 『역학도설』에서 「土旺四季之圖」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거의 똑 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표상되었다.<sup>59)</sup> 음악에 관한 律呂隔八相生之圖 는 유사한 주제의 그림들이 후대에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권근의 그림의 형태로부터 圓圖 또는 方圖 형태로 변화되고 그것이 고정되는 듯 하다.<sup>60)</sup> 「五聲八音之圖」는 順菴 安鼎福(1712~1791)의 『後天窺管』 「五聲八音之圖」<sup>61)</sup>에서 형태가 계승되지만, 내용의 표기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詩經』에 관한 그림인 「周南篇次之圖」는 황윤석의 『이수신편』에 그대로 인용 전제된다.<sup>62)</sup> 「變風十三國之圖」에 대해서도 황윤석의 『이수신편』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인용 전제되었으며, 주제는 똑같지만 형태를 圓圖 형태로 변화시켜서 다르게 표상한 九龍齋 白鳳來(1717~1799)의 『三經通義』 『詩傳』 「十三國變風之圖」<sup>63)</sup>가 있다.

57) 『入學圖說』 後集 十二月卦之, 하단, 右前十二月卦圖 卽皇極經世一元消長 作一基爲圖 而卦劃及圖與易相反 初學疑之 今依先天圓圖 考定如左以備參攷

58) 『海隱集』 권9, 雜著

59) 『旅軒全書』 下, 250쪽, 『易學圖說』 卷2

60) 참고로 같은 주제의 그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致寬(1569~1661) 『易圖書』 「律呂隔八相生之」(『亦樂齋集』 권3), 安鼎福(1712~1791) 『後天窺管』, 「律呂左旋子母之分之圖」(順菴集), 柳重教(1821~1893) 『絃歌軌範』 「律呂損益相生之圖」(『省齋集』 권49), 張顯光, 『易學圖說』 十二律隔八相生之圖」(『旅軒全書』 下, 410쪽), 金幹(1646~1732) 隔八相生之圖」(『厚齋集』 卷28)

61) 『後天窺管』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의 安鼎福의 저술로 분류된 『易學圖』 뒷부분에 실려 있다. 그러나 저자에 대해서는 상고할 필요가 있다.

62) 『理蘊新編』 下1, 1701쪽

63) 『三經通義』 卷2.(藏書閣 소장본)

## 5. 『入學圖說』 도상의 계승과 응용

### 가) 일반적 계승과 응용

권근이 제작한 도설이 그 주제와 내용 면 외에도 도상의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면 그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상의 제작을 낳았을까? 이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많은 답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十二月卦圖」와 같은 것은 그 형태가 거의 그대로 전승되면서 도상 위에 적용되는 문자적 표현에만 변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大學指掌之圖」, 「中庸首章分釋之圖」, 「土旺四季之圖」, 「五聲八音之圖」 등은 그 도상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들로써 보더라도 『입학도설』의 도상들은 이후 도상 제작에 선구적 역할을 하면서 도상의 형태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지만 『입학도설』의 도상이 후대의 도상 제작자들에 의하여 그 형태가 비판되거나 변형되었던 사례도 찾을 수 있다. 그 좋은 예는 屏溪 尹鳳九가 그의 문집 잡저 『大學圖說』에서 「陽村權氏舊圖」라는 명칭으로 권근의 도를 전제하고, 그 구도를 취하되 궁극적으로 시종일관해야 하는 敬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변형 제작한 「大學圖說 新圖」와 「中庸首章圖說陽村權氏舊圖」를 비판적으로 개정한 「中庸首章圖 新圖」가 그것이다. 강필효의 「無逸圖」 역시 권근의 동명의 그림을 변형 제작한 것이다. 그 밖에도 順菴 安鼎福의 『後天窺管』 「五聲八音之圖」에서 형태가 계승되는 「五聲八音之圖」도 역시 도상의 형태상 중요한 선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권근의 도설의 주제는 계승되면서도 전혀 다른 구도의 그림으로 바뀐 예도 주목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는 도상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면 이는 도상의 상징성의 효용과 밀접한 관련이 된다고 생각된다. 상징성의 효용이란 표상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하위적 요소들간의 상호 관계를 더욱 적절하게 표상하거

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표상하는 등의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려해야 할 도상을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근의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上」, 「洪範九疇天人合一圖下」과 김치관의 『易圖書』 속의 「九疇天人相與之圖」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주제는 유사하면서도 도상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권근의 그림이 구성 요소들을 일정한 연관 표시를 통해서 나열한 그림 형태인데 비해서 김치관의 그림은 커다란 원의 내부에 구획을 나누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각각 배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중심에 皇極이 강조되는 일종의 圓圖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나) 「天命圖」로써 본 권근 도설의 종합적 응용

단순한 변형이나 전환의 사례 이외에 『입학도설』의 여러 도상이 후대의 유학자에 의하여 제작된 그림에 부분적 요소로서 응용되거나 혹은 종합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그림 형태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天命圖」이다. 「천명도」는 최초로 정지운에 의해서 제작된 뒤 김인후와 이황에 의하여 그림의 구성에 여러 차례 변화가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정지운의 「천명도」에 사용된 몇 가지 요소들은 권근의 『입학도설』에서 각각의 주제에 맞추어 따로따로 제작된 도상들이 종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sup>64)</sup> 그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천명도」상의 천권과 지방은 전체 그림의 외연을 형성하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 형상은 권근의 「天地豎看之圖」와 「天地橫看之圖」의 형상과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권근의 두 그림이 바탕이 되어서 「천명도」의 근본적 외연인 천권과 지권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천권 상에 음양의 기

64) 줄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마음 인식에 대한 성찰, 유교사상연구 20집 한국 유교학회, 2004, 202~205쪽의 내용에 의하면, 권근의 「천인심성합일지도」와 「천인심성분석지도」에 표상된 내용이 이후 정지운, 이황, 이이 등에 의하여 수정되고 교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로써 본다면, 권근의 도설은 이후 학문의 발전과 정교화에 단초를 주거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운의 점진적 변화과정을 형상화한 것은 권근의 「십이월괘도」에 표상된 12월의 卦氣의 형상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십이월괘도」의 형상이 천명도의 천권에 적용됨으로써 천권의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진전에 따른 기운의 변화가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천권과 지권 내부의 人과 天命의 상호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에서 애초에 정지운 자신이 제작한 「천명도」에서는 『주역』의 원리에 따라서 아래로부터 위로 상향 도식의 천명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는 김인후의 천명도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황이 「천명도」 수정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천명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 도식으로 표상이 바뀌었다. 결과로 본다면 이는 권근의 「천인심성합일지도」의 방향을 복원한 것이 된다. 그리고 뒤에 제작된 「천명신도」와는 달리 「退溪先生天命圖」와 「天命舊圖」에서는 천명과 인성의 사이를 하나의 통로로 연결시켰다.<sup>65)</sup> 이렇게 천명과 인성의 사이를 하나의 통로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방향만 차이가 있을 뿐 정지운이 홀로 제작한 「천명도」에서도 시도된 것이며, 이를 김인후의 「천명도」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천명과 인성의 사이를 하나의 통로로 연결시키는 도상의 방식은 권근의 「天人心性合一之圖」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그림에서 권근은 天과 人을 理와 氣 두 요소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는 것으로 표상하면서 특히 기보다는 理가 더 중심적이라는 인식을 이 같은 방식의 표상으로써 시사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표상 방식이 「천명신도」를 제외한 일련의 「천명도」 제작에서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도설로서 太極으로부터 陰陽 五行 化生萬物에 이르는 생성론적 발전 단계를 표상한 「태극도」에서는 전체가 다섯의 차원으로 구별되며 각 차원마다 원으로 표상됨으로써 형상적으로 각 단계는 폐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권근의 도에서는 천명과 음양 오행의 기운에 의하여 인물이 형성된다는 원리의 표상을 함에 있어서 천명과 인간의 본성이 상호 직통하는 형상을

65) 본고에서 사용하는 「천명도」의 명칭은 秋巒實紀發刊推進委員會에서 발간한 『秋巒實紀』, 1993년에 준한다.

개발되었던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변화 혹은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이후 「천명도」의 제작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조선 유학 도설의 표상방식의 독자적 시도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또 「천명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心에 대한 표상 방식이다. 「추만선생 천명도」와 「하서선생천명도」는 심권의 설정이 거의 차이가 없다. 즉 상향 도식으로 표상된 천명이 인형과 만나는 핵심부분에 텅빈 원형으로 심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심권은 理(즉 천명)圈과 氣圈으로 구별되고, 理圈에는 사단의 본성이 표상되고 氣圈에는 칠정의 근거가 되는 기질의 성이 표상되어 있는 것이 정지운의 도식이다. 김인후의 도식은 정지운의 것보다 훨씬 간단한 문자적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구조는 동일하다. 그리고 심권 바깥으로 意를 경유한 칠정이 선악의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직선과 곡선으로 표상된 것이 정지운의 도식이라면, 김인후의 도식은 이를 더욱 간단하게 하여서 中節 여부로 표현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퇴계선생천명도」와 「천명구도」 및 「천명신도」에서는 심권의 표상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분석 설명할 수 없으므로 간단하게 언급하면 그 특징은 심정이 심권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즉 정지운과 김인후의 그림에서는 심정의 미발의 상태(性)와 이발의 상태(情)가 심권의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표상되었지만, 이황이 관여한 세 「천명도」(「퇴계선생천명도」, 「천명구도」, 「천명신도」)는 미발권과 이발권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양권이 실상 하나의 심권 속에 있도록 표상된 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권근의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 미발의 영역과 이발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은 것에 견주어보면, 정지운의 그림과 김인후의 그림은 처음으로 이에 대한 구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황은 이에 대한 구별을 고려하되 미발과 이발을 하나의 순환적 작용의 체계로 표상한 점이 발전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心圈을 표상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심권의 표상은 무엇보다도 형상이 없

는 心을 표상했다는 점에서 心의 形象化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중국 성리학자들의 그림에서도 심, 즉 마음의 형상화는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권근이 「천인심성합일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도 권근 자신은 심의 형상화를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근과 학자들 사이에 심의 형상과 내용을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점이다.<sup>66)</sup>

또 권근의 「천인심성합일지도」에서 음양과 오행을 표상하는 방식상 그 向位가 「태극도」의 그것과 반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천명신도」를 제외한 다른 「천명도」들은 모두 권근의 그림과 동일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 역시 조선 유학의 도설이 추구한 중요한 변화에 속하며, 여기서 도설 제작자의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입학도설』에서 이에 관해서 권근은 다음과 같은 문답을 기록하여 놓았다.

주렴계의 그림은 陽儀가 왼쪽에 있고 陰儀가 오른쪽에 있어서 음양의 방위가 각각 그 바름을 얻었는데, 그대의 이 그림은 陽이 오른쪽에 있고 陰이 왼쪽에 있어서 오른쪽을 東으로 삼고 왼쪽을 西로 삼았으니 왜 그런가?

주렴계의 그림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림을 대면하는 것이니 내가 북쪽에 있고 그림이 남쪽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왼쪽이 동쪽이 되고 陽儀가 거기에 해당하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陰儀가 거기에 해당한다. 나의 그림은 그림이 주가 되고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니 그림은 북쪽에 있고 나는 남쪽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은 오른쪽이 되고 서쪽은 왼쪽이 된다. 단지 賓主의 待對의 다름이 있을 뿐이니 음양의 방위가 바뀐 적은 없는 것이다.<sup>67)</sup>

66) 『入學圖說』 天人心性分釋之圖, 뒤에 붙은 문답 참조

67) 위와 같은 곳, 曰周圖陽儀居左 陰儀居右 以右爲東以左爲西何也 曰周圖我爲主而對圖 則我在北而圖在南 故左爲東而陽儀居之 右爲西而陰儀居之 此則圖爲主而我觀之 則圖在北而我在南 故東爲右而西爲左 但有賓主待對之異而已 陰陽方位未嘗易也

이러한 도상 제작의 입장은 이황이 찬한 「天命圖說後敍」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서 이황은 권근의 관점과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즉 그의 설명의 요지 역시 관자를 주인과 분리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방위의 표시가 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sup>68)</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권근이 도를 제작하면서 고려하고 반영 하였던 내용이나 태도가 그대로 「천명도」의 제작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권근의 도제작과 「천명도」 제작자들 사이에 도설의 제작과 관련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사승관계 내지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상과 그 제작의 태도 및 방식에 매우 친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상을 통해서 도상 제작의 역사의 장을 열었던 권근의 도설의 의의, 혹은 도 제작자로서의 권근의 위상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결 론

본 연구는 양촌 권근의 『입학도설』이 조선 유학의 도 제작의 역사의 방향을 정초하였던 내용과 아울러, 『입학도설』의 도들이 후대에 계승된 양상과 추세를 도 자료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밝혔다. 이로 인하여 권근의 도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 전제되었던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권근의 도를 응용하거나 비판 개정하여 변형된 도를 작성 하였던 사실을 밝혔다. 이로써 도상을 통해서 표현된 유교의 이념 원리의 내용뿐 아니라 도상의 형태, 및 그로 인해서 유학자들의 내면에 형성된 일종의 유교적 은유의 세계까지도 추론이 가능하다.

68) 『韓國文集叢刊』30책 『退溪集』2, 406~407쪽, 「天命圖說後敍」, 客曰子謂此於太極圖有祖述者 似矣 然太極圖左爲陽右爲陰 本於河圖洛書 前午後子 左卯右酉之方位 固萬世不易之定分 今圖一切反是而易置之 不亦疎謬之甚耶 滉曰不然此非方位之易置也 第因觀者之於圖 有賓主之異耳

본 연구에서는 『입학도설』의 도로부터 후대의 도들로 계승 변형되는 과정이나 그 구체적 형태를 논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단 『입학도설』의 도들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들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와 유학자들의 내면세계에 형성된 유교적 은유와 관련된 영상도식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천인심성합일지도」와 「천명도」들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도상의 응용과 발전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은유, 또는 내면에 형성되는 영상도식의 유형에 대한 추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학자들의 인지와 관련된 은유 및 영상도식 등에 관한 고찰과 추론은 다음 연구에서 별도로 기획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근의 『입학도설』의 의의를 밝힐 수 있다. 첫째, 권근의 『입학도설』은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도상 제작의 효시로서 경전의 원리와 각종 철학적 원리들의 도상적 표현의 기초가 되는 도상 형식들을 제시하였다. 그로써 이후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를 계승하거나 응용 또는 비판적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상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천인합일의 이념으로 일관하는 도설집을 저술함으로써 천인합일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도상 내지 도설집의 제작의 효시가 되었다. 『입학도설』 이후 조선 유학의 도설들은 이러한 천인합일의 이상을 계승하면서 그 이상을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다양한 도상으로 재생산하여 간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입학도설』이 조선 유학 도설의 계통발생의 시초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입학도설』의 다양한 그림들은 도상의 방법을 통해서 유교 이념 내지 경전의 이념을 표시함으로써 유교 이해를 위한 영상도식적 형태의 원형이 되었다. 비록 이후의 도설에서 많이 수정되거나 개정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입학도설』의 그림들은 조선 유학자들의 유교 인식에 기초적인 영상도식의 형태를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 밖에 체용론에 입각한 경전의 내용 체계화라든가, 유교 이념 및 그것의 실천의 원리를 체계화한 것은 이후 도설의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계승되었다. 물론 이것은 유교 자체의 발상법이기도 했지만 이를 도상에 담아냄으로써 더욱 뚜렷한 인식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경을 체용관계로 정리한 「오경체용합일지도」는 경전의 내용을 체용의 관계로 정리한 것이고,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인간의 심성정을 체용의 관계라는 영상도식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권근의 도 제작의 태도는 賓主 즉 主客의 구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관찰자와 대상의 관계를 구별하는 점이 특징인데, 이를 후대의 도 제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 제작의 관점 설정에서 제작자의 위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나의 시론적 연구에 불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입학도설』의 도상에 관한 일종의 도상학적 관점과 관심에 입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일종의 도상학적 유교 연구를 체계화하는 것이 향후 도 연구에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유교의 은유의 세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화된 연구가 도를 통해서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도와 인지의 상호관계를 유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되, 인지과학적 연구가 필요함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도 조선 유학의 도 자료의 등장과 관련된 도상의 변형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학도설』 이후의 조선 유학의 도상 발달의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入學圖說』 安田十兵衛 開板本  
民族文化推進會,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1책부터 300책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經學資料集成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고전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고문헌 자료  
한국국학진흥원 자료 및 기타 문집  
秋巒實紀發刊推進委員會, 『秋巒實紀』, 1993  
『三才圖會』  
M. 존슨 지음, 노양진 옮김, 『마음속의 몸: 의미·상상력·이성 신체적 근거』, 철학과 현실사, 2002년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집 이한순 노성두외 옮김,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2005  
구춘수, 「권근의 입학도설 고찰」, 공사논문집 28집, 1990,  
李鍾尙, 『「入學圖說」後集을 통해 본 陽村의 思想』, 한국철학논집 3집, 1993,  
장숙필, 「권근의 『입학도설』과 그 영향」,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2000  
정대환, 『「入學圖說」을 통해서 본 權近의 性理學』, 범한철학 26집, 2002 가을  
김낙진, 「황윤석의 동서양 자연학의 절충과 시대적 한계」, 『도설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2000  
유권중, 「天命圖 比較: 秋巒 河西 退溪」, 한국사상사학 19, 한국사상사학회, 2002. 12  
\_\_\_\_\_,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마음 인식에 대한 성찰」, 유교사상연구 20집 한국유교학회, 2004  
\_\_\_\_\_, 「중국 유학의 도설과 의의」, 『중국학보』 53집, 한국중국학회, 2006

**A Study on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and Other Confucian Diagrams made in Chosun Dynasty**

Yoo, Kwon Jong

This is a study on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which was made by Kwon Ku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and proposes way of fundamental research for three aspects of developed studies on these Confucian diagrams. The first aspect is a field of meaning depicted on the diagrams, the second related to construction of image scheme and cognition, and the third iconographic features of diagrams. Being considered that except the first the rest have not been studied yet, this study as a fundamental research about Confucian diagrams is started in order to activate these studies. The items of fundamental research are as follow: The first is to define a possibility to divide the study of Confucian diagrams as a new and different field from the studies of Confucianism which have been tried on the base of literal materials. The others are for redefinition of the academic phase of Kwon's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Confucianism for the time of Chosun Dynasty, and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context of making Confucian diagrams. Therefore the main ideal theme of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and principles for making diagrams are researched and cases of their accession and application by other Confucian scholars are researched, too. The main theme of Kwon's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is oneness of Heaven and man, and other principles are 'the theoretical viewpoint based on entity and its operation' and some ones related to the learning of Confucian classics.

Many Confucian diagrams made after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till the close of Chosun Dynasty are showing the fact that Kwon's themes and principles were accessed and applied by many other Confucian scholars. And *Diagrams of Heavenly Order* made by some other Confucians after Kwon, also shows that many ideas and icons of Kwon's were accepted and applied.

In conclusion,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was the beginning of making Confucian diagrams and proposed many new and different icons and ideas of Korean Confucian diagrams from Chinese ones. For the first time of East Asian Confucianism it has been made with the total theme of oneness of Heaven and man. Various icons of the diagrams had become the fundamentals of image schema for the 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Kwon's themes and principles have given important standards to the later Confucian scholars in the making of diagrams.

**Key Words:** *Confucian Diagrams and Explain for Beginner*, Kwon Kun, Chosun Dynasty, icon, image scheme, oneness of Heaven and man

유권종 e-mail : ykj111@cau.ac.kr5